

17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56.81	↓ 코스닥	694.47
	(-32.16)		(-4.06)
↑ 금리 (미국 9년)	2.621	↑ 환율 (원-달러)	1438.95
	(+0.068)		(+3.95)



## 내년 예산 75% 상반기 배정... 민관 원팀 무역장벽 타개

**‘탄핵정국’ 경제부처 긴급 대응**  
민간소비 위축, 수출 증가세 둔화  
트럼프 2기 대비 韓美 협력 중요  
정부-협단체-기업 실시간 소통  
무역장벽 대응 민관협력체계 구축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초유의 정국 혼란 사태가 일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지표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정부 역시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 최근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민간소비 등 내수는 12·3 계엄령 이전에 이미 위축을 지속해 온 데다 상반기에 정상 궤도에 오르는 듯 보이던 수출마저 3분기 들어 증가세가 둔화했다. 게다가 국내 정치 상황이 요동치는 와중에 미국 차기정부 출범이 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휘부(컨트론타워)의 사실상 부재 속에 경제 관련 부처들이 진두지휘에 나서고 있다. 경제부총리 주재의 긴급 회의가 열흘 넘게 개최된 데 이어, 17일에도 안덕근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이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기업 간 적극 공조를 통한 불확실성 대응을 강조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하며 내년도 예산 가운데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민 생계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을 지원해 식여가는 내수경기를 최대한 진작하고 첨단산업 육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성장동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예산 배정률은 2019년 70.4%, 2020년 71.4%, 2021년 72.4%, 2022년 73%를 기록했고 2023년 75%로 확대한 뒤 올해와 내년까지 3년 연속 75%를 유지하게 된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산업부는 기업 지원의 최후 보루로서, 흔들림 없이 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관 원팀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협단체-기업 간 실시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해서는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려요인과 기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상호호혜적 한미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특히 수출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역금융 강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한 적극적 투자 및 외국인투자 유입을 위해 규제 개선·기업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환율상승에 따른 국내 에너지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수급 관련 일일 점검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가 열렸다. 정 본부장은 “미국 신 행정부 출범 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이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탄핵정국 관련기사 2·3·4면〉



75년 만의 만남

17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4·3희생자 고 양천종씨의 딸 양두영(94)씨가 아버지의 유해가 들어있는 함을 전달 받고 있다. 이날 제주로 돌아온 고 양천종 희생자는 1949년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체포돼 광주형무소에서 생을 마쳤다. 양 희생자는 광주 북구 옛 광주형무소터 무연분묘에서 2019년 12월 발굴된 261구의 유해 가운데 1구다.

/뉴스1

## “금융 불확실성 선제 해소... 신인도 유지 총력”

BIS·FSC·BOK 공동 AI 컨퍼런스  
김소영 “금융사 AI 활용정책 지원”

“최근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금융부문을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

국제결제은행(BIS)과 금융위원회(FSC), 한국은행(BOK)이 공동으로 개최한 인공지능(AI) 컨퍼런스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16년도에도 금융시스템 불안은 없었다”며 “지금은 더

견고한 시장 안정장치들을 가지고 있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변동성이 확대된 금융시장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도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일 원·달러 환율은 1402원에서 16일 기준 1432.7원으로 2.19% 급등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불확실성이 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국내에 진행되는 행사를 정상적

으로 운영하는 등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융시스템 AI 활용지원정책 등 계획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금융사 내부망에서도 AI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공동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AI 개발 및 학습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리 기자 yul115@

## 中 BYD의 위협... 日 이어 국내 안방 넘본다

(전기차업체)

BYD코리아, 6개 딜러사 선정 완료  
현대차그룹과 경쟁, 가격이 관건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급성장한 중국 전기차업체 비야디(BYD)가 한국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BYD에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는 안방까지 위협받게 된 상황이 됐다.

실제로, 수년간 일본 전기차 시장에 공들인 현대차는 현지 시장에 전격 진출한 BYD에 패배의 쓴잔을 마셨다. 이에 업계에서는 현대차와 BYD의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BYD코리아는 BYD 승용차의 판매를 담당할 딜러 파트너사로 DT네트웍스, 삼천리이비, 하모니오토모빌, 비전모빌리티, 지엔비모빌리티, 에스에

스모터스 등 6개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딜러로 선정된 6개사는 내년 초 BYD 승용차 브랜드 출범 후 국내에서 BYD 승용차에 대한 판매 및 AS 서비스, 고객 관계 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DT네트웍스는도이치오토모빌 그룹의 자회사로 서울 서초를 중심으로 경기도 수원과 분당, 고양, 부산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입차 판매 1위인 BMW의 성공을 이끈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BYD의 한국 시장 공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삼천리이비는 서울시 양천구를 비롯해 경기도 안양시와 인천을 공략할 방침이다. 하모니오토모빌은 서울시 강서와 용산, 제주시를 담당한다. 비전모빌리티는 광주 서구와 대전 동구, 지엔비모빌리티는대구수성구, 에스에스모터스는 강원도 원주를 맡는다.

BYD는 현재까지 진출한 전세계 99개 국가와 지역에서 모두 딜러 체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전기차를 처음 접하는 고객들에게 대면 방식을 통해 전기

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정확한 이해를 돕고, 전기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고객 체험의 질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 사업부 대표는 “한국 고객들에게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는가를 우선 가치로 두고 6개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딜러 선정이 완료된 단계로, 권역별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개소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은 추후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우원식, 경제4단체장 만나 “미·일·중·EU 등에 의장 특사 파견할 것”  
▲ 이재명,尹탄핵 가결 후 ‘대장동 재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사진 뉴스스)

▲ 박찬대 “윤 탄핵에도 할일 점점산중...책임자 엄벌·민생 입법 신속해야”  
▲ 정부 “韓 권한대행 트럼프 취임전후 방미 검토, 구체적 단계 아냐”



▲ 천하람 “권성동, 재판지연 내로남불...헌법재판관 임명해야”  
▲ 오세훈 “‘상왕 놀이’ 심취한 이재명, 경제·정치 최대 리스크” (사진 뉴스스)